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4월 10일(주일) 제1388호

202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

‘십자가, 세상의 소망’

4월 11~15일 오전 6시 ‘202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본당, CGNTV 및 유튜브 생중계
(예배당 5시 30분 기도, 찬양·유튜브 중계 5시 30분·CGNTV 중계 6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202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이 4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6시에 열린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생중계된다. 예배당 예배에서는 오전 5시 30분부터 찬양과 중보기도를 시작한다. 유튜브 중계는 오전 5시 30분부터, CGNTV 중계는 6시부터 한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큐티지 <생명의 삶>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설교

한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특순도 풍성하다. 4월 11일(월) 버금미션, 4월 12일(화) 주사랑찬양사역팀, 4월 13일(수) 주기쁨찬양사역팀(양재), 4월 14일(목) 주의 빛찬양사역팀(양재), 4월 15일(금) 주찬양찬양사역팀이 특순을 한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나라의 지도자, 수요일 코로나19 종식과 회복, 목요일 교회, 금요일 세계 선교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올 때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중보기도 해야 한다. 미디어 금식도 병행하면 좋다. 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면 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당과 온라인(영상)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항진 장로(장로중보기도회)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진솔한 회개를 하면서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애인의날 기증캠페인

굿월스토어, 4월 17~24일까지
수거함, 목회행정실, 택배, 방문 수령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을 4월 17일(주일)과 24일(주일) 한다. 서빙고, 양재, 수원, 대전,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기증할 물품을 교회에 설치된 굿월스토어 수거함이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가져다주면 된다. 굿월스토어 지점을 방문해서 기증해도 되고, 택배나 방문수령(100리터 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대형 가구, 설치가 필요한 전자제품, 오래된 아동 전집, 큰 플라스틱 장난감, 사용한 침구나 속옷, 고장 났거나 오염된 물건은 기증할 수 없다.

굿월스토어(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는 장애인들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과 존엄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소매유통 중심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다. 전국 13개 매장이 있다. 장애인 275명이 일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장애인주일 전후 2주 동안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을 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주일은 4월 27일이다.

문의: 1670-9125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4월 20일까지 신청, 5월 2일 유튜브 채널 업로드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는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윤희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이하 행복드림 콘서트)’가 막 오른다. 5월 2일(월)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이 업로드된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은 4월 20일(수)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복드림콘서트에는 가수 윤희주 장로, 이무송 집사, 소프라노 홍혜란이 출연한다. 신청자들은 5월 2일 이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부모님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전도사역본부에서 특별한 개인 영상도 제작해준다. 4월 24일까지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를 보낸 신청자에게 행복드림 콘서트 전체 녹화본에 영상편지를 덧붙여 제작한 영상을 USB에 담아 자택으로 보내준다.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는 이메일(graceshj@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행복드림 콘서트 요청자 기도모임도 열린다. 4월 20일과 27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접속 링크는 추후 신청자들에게 공지된다. 중보기도 단체채팅방도 운영한다. 단체채팅방에 기도제목을 공유하면 전도사역본부에서 함께 중보기도 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2’,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마지막 주제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마지막 주제는 ‘인간’이다. 이번 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제안하는 작은 실천은 ‘하루에 한 번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선포하기’,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말과 행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에게 격려 메시지 보내기’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지난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6일과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하면서 창조질서를 회복해나가고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은 독거 어르신 맥을 방문하고, 골목의 쓰레기도 줍는 일석이조 사역을 했다(관련기사 4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마지막 일주일!

4월 17일까지 헌혈의 집, 헌혈카페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해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 모금도 함께 했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는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의 교회와 단체

에서 성도 3,521명이 동참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는 4천1백만 원가량 모금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시면 된다.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가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서 모금된 헌

혈증과 수술비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소아암 어린이가 정에 전달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관련기사 5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남양주온누리교회 기공예배

4월 13일 오후 2시 남양주 신축부지

남양주온누리교회 기공예배를 4월 13일(수) 오후 2시 남양주 신축부지에서 드린다. 기공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새 예배당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77번지에 짓는다. 젊은 세대에 한정된 5천세대를 포함하여 총 3만여 세대가 밀집해있는 단지 중심에 있다.

이해영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임)는 "17세 소년 요셉이 꿈을 꿔던 것처럼 창립 17주년이 되는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새로운 터전에서 새 꿈을 꾸다"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일으키며, Acts29 비전을 이어가는 남양주온누리교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영혼을 위한 'CGNTV'

'사랑으로 함께', '더 위대한 사역', '달려라 풍당'

한 영혼을 위한 CGNTV의 발걸음이 참 귀하다. CGNTV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4월 10일까지 한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이다. 현재까지 성금 약 2억 원이 모금됐다.

CGNTV 개국 특집다큐멘터리 '더 위대한 사역'이 진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했다가 갑작스레 소천한 최원일 선교사의 흔적을 찾아 나선 그의 아내 조유진 선교사의 이야기다. 지난

4월 3일 1부가 방영됐고,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2부가 방영된다. <관련기사 6면>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도 곧 시작된다. 자전거, 도보, 러닝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운동한만큼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을 후원하는 챌린지다.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은 4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김명선 기자

헬로맘 참가자 모집

헬로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헬로맘은 성격 속 여성들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 부부 연합의 비밀,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지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속사람을 단장한 여인, 사라', '선택의 행로에 선, 리브가', '비움에서 채움으로 인생이 변한, 나옴과 뜻', '비천의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라함'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716-2736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온라인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온라인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0

온누리세계관학교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

4월 19일과 26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세계관학교(OWA)에서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를 주제로 상반기 세미나를 연다. 4월 19일(화)과 26일(화) 오후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세미나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에서는 성혁명, 동성애, 젠더이데올로기, 차별금지

법, 학교 성교육 등을 주제로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가 강의한다. 동성애가 왜 이슈가 되었는지, 성혁명의 시작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음세대들이 어떠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참가신청은 전화(02-3215-3637)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9일~6월 25일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한 명당 1만 원(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 가정당 1만 원)。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은 레크리에이션, 미술, 놀이 등 예술 매체와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고,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회복프로그램이다.

문의: 010-2647-5435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5월 1일~5월 29일 매주 일 오후 1시 30분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창조신앙스쿨은 '창조신앙은 무

엇인가? 왜 필요한가?', '인류의 기원 진화론 바로 알기', '노아홍수 사건&화석과 지층', '지구와 우주', '패러다임과 영적전쟁'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4658-0987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폐 이식 수술받은 민성기 선교사 회복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폐 이식 수술까지 받은 민성기 선교사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민성기 선교사는 한국으로 이송돼 지난 1월 14일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식한 폐와 심장, 소화기관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신체 기능을 회복했고, 합병증을 우려했던 심폐기능과 위장 기능도 잘 회복하고 있다.

최윤숙 선교사(민성기 선교사 아내)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면서 "민성기 선교사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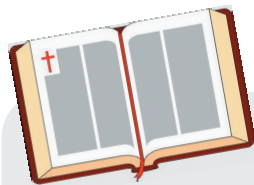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4월 20일 개강

필수, 선택, 풍당과정 16개 강의 개설

대학청년부 2022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4월 20일 개강한다. 필수과정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선택과정 '성경탐구 40일(구약)', '가스펠 프로젝트-위대한 시작', '가스펠 프로젝트-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성품(OBC)', 'Why mission?', '진짜 자아 찾기(에니어그램)', 'True worship(예배학교)', '창조신앙 바로 세우기', 'FIWA-일과 재정', 'FIWA-성공', 'FIWA-관계', 풍당과정 'C.S.Lewis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 등 16개 강의가 개설된다.

바이블 아카데미 참가신청은 대학청년부 온라인 주보로 하면 된다. CDC, 성경탐구 40일, 하나님의 성품, Why mission?, 풍당과정 과목은 개강 전에 아이스쿨(www.ionnuri.org)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실시간 강의는 1개 강의만 신청할 수 있다. 풍당과정 'C.S.Lewis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은 4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풍당 앱에서 언제든 수강하면 된다. 문의: 02-3215-3759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야고보 사도는 시험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흠어져 있었고, 흠어져 있기에 가난했고, 가난 가운데 분열의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부를 얻을 수 있는 상인들과 지주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상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고, 5장 1절에서 6절은 대지주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당시 상인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내일의 모든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13절).

계획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생의 계획이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잠언의 말씀을 의식하며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 나라”(잠 27:1).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짧음, 인생의 헛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잠언 말씀을 적용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마 6:34).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획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파하시든, 이루시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통해서도 역사하

실 것이고, 괴로움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 계획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둘째, 허탄한 자랑이 사업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16절).

사업의 목적이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허탄한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업을 통해 교만과 허세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선한 사업에 쓰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에서 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보다 이생의 자랑이 영적인 죄이기에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

셋째,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상인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독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행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세상 법의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법으로는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의 법,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부를 통한 시험

야고보서 4:13~5:6

“부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도입니다. 어떻게 부를 얻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기준입니다.

5장에서는 당시 불의한 부자들, 대지주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상태와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들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찌면 가장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의로웠고, 경건했고, 모든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머나교회가 그랬고, 두 렁돈을 헌물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교회가 그랬고, 젊은 부자 관원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에 속하면서 불의하기까지 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불의하게 쌓은 많은 재물이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다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1~3절).

‘썩고 녹슨 재물’이란 지나치게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불의한 삶의 증거가 되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정죄의 근거가 됩니다.

불의한 부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을 것

둘째,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한 불의한 부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불의함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 같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렘 17:11).

셋째,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의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실제 살인이라기보다 법정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주들이 가난한 이들을 채무자로 만들어서 도저히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해서 계속 노예로 가둬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을 비판하는 사람조차 부유함이 찾아오면 부를 통한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가난함을 통한 시험은 인내하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를 통한 시험이 더 힘들고 어렵고, 결과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가난을 통한 시험은 가난하고 배고플 뿐이지만, 부를 통한 시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욥 31: 24~25, 28).

욥은 의로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단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부를 통한 시험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를 얻고, 그 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딤후 6:17~19).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 9일 천국으로 환송해 드린 온누리교회 장응복 장로님은 북한에서 홀로 내려와서 의사로서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고쳐 주면서 “나에게 만일 100억이라는 돈이 모이면 아낌없이 장학사업을 위해 드리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응복 장로님은 늘 “도울 사람들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응복 장로님은 어려운 시기마다 많은 돈을 공동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한 하나님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르신들 방문하고, 쓰레기도 줍고!

서빙고 이웃사랑팀의 '일석이조' 사역 실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6일과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4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창 1:24)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여하기, '입양 가정위탁 프로그램' 시청하기, '생물 다양성 이슈에 대해 알아보기' 등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이하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동빙고동, 보광동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골목 쓰레기를 줍는 일석이조 사역을 실천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각지도 못했던 안부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잘 지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 세 마디면 입가와 마음에 웃음꽃이 활짝 핀다. 이 아름다운 세 마디가 홀로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더 특별하고 귀하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동빙고동, 보광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매월 마지막 주일에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어도 문 앞에서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한 가지 더 준비했다. 골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선물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 무르익어 갈수록 서빙고 이웃사랑팀 리더십들의 행복한 고민이 깊어졌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역팀에서도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꼭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심에 고심하던 이철원 총무(서빙고 이웃사랑팀)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어르신들을 찾아볼 때 주위에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할 때 쓰레기도 함께 주우면 어떨까요?”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가 사랑과 정을 나누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청소하는 일석이조 사역이 그렇게 탄생했다.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한 지난 3월 24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모인 서빙고 이웃사랑팀원들의 손에 쓰레기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날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동빙고동, 보광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골목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웠다. 깨끗해진 골목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어르신들의 행복은 덤이었다.

내 주변부터 깨끗하게,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독거 어르신들도 방문하고 쓰레기도 줍는 일석이조 사역을 했다.



생명 살리는 전화 한 통

김지남 자매(서빙고동)도 그 뜻깊은 발걸음에 동참했다. 그녀는 동빙고동과 보광동 골목을 누비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환경을 지키는 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쓰레기를 보면서 거리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남 자매는 일상에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리·정돈되지 않는 환경을 눈여겨보지 않고, 보고도 못 본 척,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지냈다는 것도 깨달았다.

“교회 화단의 예쁜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환경이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골목의 쓰레기를 줍는 것부

터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환경이 많은데 보고도 못 본 척,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보는 게 어떨까요?”

김지남 자매는 주변 환경부터 깨끗하게 하는 실천에 더해서 ‘안부 전화 생활화’라는 새로운 도전도 제안했다. 그녀의 제안이 솔깃한 이유가 있다. 요즘에는 가난보다 무서운 게 고립이라고 한다. 고독사 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업체에 의뢰되는 사례 80%가 20~40대라고 한다. 나이가 많은 적든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의미다. 김지남 자매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리는 작지만 큰 실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안부 전화를 매일 해주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축스러워서 평소엔 건네지 못했던 말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짧은 전화 한 통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도 창조질서를 회복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줄 소감

사순절 창조질서회복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개 정류장 정도는 그냥 하차 하고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니 자연히 걷는 시간이 많아져서 활력 있는 생활 리듬을 찾게 되었습니다.

/ 권용봉 집사(서초A공동체)

원래 물을 틀어 놓고 양치질을 했었는데 이제는 물을 양치컵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예림 성도(양지온누리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엄마 심부름으로 자전거 타고 다녀왔어요. 운동도 되고 자동차 안 타고 환경에도 좋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 박계연 성도

개나리를 보면서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 신후남 성도

제주도 사는 교회 친구가 보내준 제철 과일 먹으며 기력을 회복 중입니다. 환절기 모두 감기 조심,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어쩔 이리 멋진 과일도 만드셨을까요. 이번 주 생명나눔주제 새벽기도 참여하며 저도 맘이 동해서 미혼모 아이를 위한 작은 선물 인형을 준비해 포장하고 있습니다.

/ 김하나 성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는 것을 보니 창조주의 질서가 요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과 계절이 너무 닮아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와서 꽃들이 피어나듯 움츠려졌던 몸과 마음이 다시 행복과 사랑으로 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 정찬수 성도

| 창조질서 회복하는 또 하나의 실천 |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는 '줍깅'과 '클린 하이킹'

누군가 눈치를 살살 보다가 골목 한 귀퉁이에 버린 쓰레기가 몇 개 쌓이기 시작하면 급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산도 마찬가지로. 등산하면서 배출한 쓰레기가 좀처럼 줄

지 않고 있다. 등산 문화가 제법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봄이 되면 등산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바른 방법으로 버리면 일도 없겠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집 앞, 소속 공동체 지역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운동도 하는 '줍깅'과 쓰레기 줍는 등산 '클린 하이킹'이 요즘 대세라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진 생명의 빛 갚기 위해 헌혈한 이경수 성도

지난 4월 4일(월) 혈액보유량이 2.8일까지 떨어져 혈액수급위기 '주의단계' 까지 됐다. 그만큼 헌혈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살릴 피가 턱없이 부족하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헌혈하는 사람이 더 줄었다. 코로나19 완치자와 백신 접종자에 대한 헌혈 참여 제한 규정(확진자는 완치 이후 4주, 백신 접종자는 7일 동안 헌혈 제한)도 변수다. 지금은 혈액보유량이 3.1일로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적정혈액보유량 5일분 이상에 한참 못 미친다(4월 8일 기준). 더 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심각한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헌혈하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 교회와 단체에서 3,521명이 헌혈했다(4월 8일 기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경수 성도(대전온누리교회)는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 헌혈했다.

이경수 성도(대전온누리교회)는 두 번이나 생명의 빛을 졌다. 가족을 잃을 뻔했을 때 누군가의 헌혈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경수 성도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는 동안 피가 부족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혈로 고비를 넘겼다.

“어머니가 간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그때 수혈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수혈을 받지 못했더라면 어머니와 더 빨리 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헌혈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경수 성도 아내가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도 헌혈의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의 헌혈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지켰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자궁 출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긴급하게 수혈을 받고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가 없었더라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경수 성도는 누군가의 헌혈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지만, 헌혈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다.

“제가 두 번이나 생명의 큰 빛을 졌는데도 헌혈에 큰 의미를 두지 못했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월을 꽤 보냈습니다.”

이경수 성도가 미루던 헌혈을 실천하게 된 것은 생명나눔의 기적 덕분이다. 성도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면서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모

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 헌혈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요즘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지만,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을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했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그동안 헌혈을 두려워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미뤘나’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다시 떠올랐다. 작은 실천이 모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피부에 와닿았다. 이경수 성도는 앞으로도 헌혈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헌혈하면서 어머니와 아내가 수혈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실천이 제 어머니와 아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이라는 말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을 먼저 체험한 제가 더 열심히 생명을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헌혈할 것입니다.”

이경수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저희 가정은 헌혈로 그 무엇보다 값진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군가 헌혈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주십시오.”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첫 헌혈이었다. 나의 피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하다. / 신주용 성도
- 코로나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헌혈에 참여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나눔으로써 주님을 닮기를,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김솔아 성도
- 이번엔 조금 아팠지만 누군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참을만 했습니다. / 문희정 성도
- 또 한 번의 작은 봉사가 주는 큰행복. / 반재기 성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헌혈하겠습니다. / 김성환 성도
- 지금 제가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저의 피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 송영광 성도
-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있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 헌혈이네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생명나눔 헌혈을 꾸준히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 박용식 성도
- 교회 나눔 행사 덕분에 생애 처음 헌혈을 하게 되었네요.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 이번 계기로 가능한 한 해 5회!! 도전도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정지태 성도
- 안녕하세요. 오늘 서빙고에서 10시 타임 헌혈 사전 신청 후 진행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모두 바칩니다. 생명나눔의 날 덕분에 헌혈을 해서 뿌듯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혈액 부족이라던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 류가영 성도
- 작은 저에게 생명나눔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연규민 성도
-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해리 성도
- 작은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 정영광 성도
- 요즘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귀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 현경임 성도
- “2003년에 헌혈하시고 오랜만에 오셨네요”라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잠시 부끄러웠네요. 헌혈을 하며 2003년이 어떤 해였는지 떠올려보니 결혼하던 해였네요. 오늘 생명나눔에 동참하며 결혼 생활 19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온 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찾는 느낌입니다. / 강찬규 성도
- 4개월 만의 운동으로 인한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아픈 허리 부여잡고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 홍석구 성도
- 수술실에서 수혈을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피가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부터 동참합니다. / 조정구 성도
- 지난해에 이어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게 하시고 헌혈할 수 있는 건강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서대환 성도
- 교회에서 생명나눔으로 헌혈 동참 광고를 듣고 몇 주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 9시 교회 앞에 헌혈 버스를 보며 ‘예수님의 자녀라면 생명나눔에 참여하자’ 다짐을 했고 예배가 끝나고 동참했습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된다는 생각에 미소를 짓습니다. / 장동일 성도

CGNTV 개국특집다큐멘터리 <더 위대한 사역>

단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한 방송 조유진 선교사가 만난 ‘CGNTV’



CGNTV는 순수복음방송이다. 후원자들이 CGNTV를 ‘순수복음방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4시간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방송하기 때문이다. CGNTV를 ‘순수복음방송’이라는 부르는 더 큰 이유가 있다. CGNTV 임직원들이 오직 복음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음만 생각하는 CGNTV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선교와 선교사’다. CGNTV 임직원들은 단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단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한다. 조유진 선교사(캄보디아)가 바로 그 ‘CGNTV’를 만났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CGNTV 개국특집다큐멘터리 <더 위대한 사역>에 고스란히 담겼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조유진 선교사는 남편 故 최원일 선교사의 일기를 따라 동역자들과 선교지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꼈다.



조유진 선교사(캄보디아)는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에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더 위대한 사역>의 또 다른 주인공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가 갑작스럽게 소천한 조유진 선교사의 남편 故 최원일 선교사(1981~2019)다.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은 조유진 선교사가 故 최원일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이 故 최원일 선교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묵상하는 눈물나는 여정이다. 지난 4월 3일 CGNTV에서 다큐멘터리 <더 위대한 사역> 1부를 방영했고,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더 위대한 사역> 2부가 방영될 예정이다. 조유진 선교사(캄보디아)는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을 촬영하고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의 삶을 잘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10월, CGNTV가 조유진 선교사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조유진 선교사의 남편 故 최원일 선교사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유방암 재발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마치고 회복하던 조유진 선교사가 뜻밖의 제안을 받고 갈등했다.

“전부터 남편의 삶을 잘 정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다는 제 마음이 너무 커서 남편의 삶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삶을 통해서 하

나님이 더 드러나야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CGN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서 더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망설이던 조유진 선교사의 마음을 돌린 것은 유진주 PD와 제작진이다. 그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조유진 선교사의 마음이 녹았다.

“유진주 PD님이라 제작진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CGNTV와 다큐멘터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CGNTV 임직원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주위 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의 삶을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 위대한 사역>은 추모다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유진주 PD와 제작진은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 제작을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 조유진 선교사의 남편 故 최원일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분의 너무 슬픈 이야기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

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유진 선교사는 남편 故 최원일 선교사가 남긴 일기를 읽으며 고인의 신앙 여정과 흔적을 뒤따라갔다. 어린 시절 교회 친구부터 캄보디아 교인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은 단순한 추모다큐멘터리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추모하는 마음이 큼니다. 만약 제가 남편의 삶을 정리했으면 남편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이야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을 촬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의 삶을 들여다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위대한 사역>은 추모다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여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결과물은 안 봐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촬영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추모의 마음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일기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남편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 ‘사랑’

사랑.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을 촬영하고 시청하면서 조유진 선교사(캄보디아)의 마음에 다시 새겨진 단어다.

“영상으로나마 남편을 본다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슬프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주 PD님의 말씀처럼 CGNTV 임직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주위 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유진 선교사는 다시 선교지로 간다는 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 건강상의 이유와 선교 단체의 사정으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을지, 간다면 언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알 수 없지만, 캄보디아를 향한 조유진 선교사의 사랑은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있다.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을 촬영하면서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낙르 영교회’에 있는 남편 묘소도 들르고, 목사님 이랑 성도님들, 선교사님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보관해두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소중해서 그대로 담아 놓고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남편의 유품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지는 마음입니다. 다시 캄보디아에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CGNTV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 시청 안내

- CGNTV :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더 위대한 사역> 2부 방송
- 기록 OTT ‘풍당’ :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 검색

가정 파괴하고, 자녀들을 희생자로 만든다

4월 19일, 26일 온누리세계관학교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



이상현 집사
(강남도공동체, 송실대 법대 교수)

특정한 신념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며, 잘못된 신념은 희생자를 낳는다. C. S. 루이스는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신념이다”라고 했다.

잘못된 신념이 주류 문화가 되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화가 어떤 신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평등법 등이 도입된 서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고 즉, 서로 동의하는 성인들이 행복하면 전통적인 혼인 상태 이외의 가족 구성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 역시 편향을 거라는 신념은 성혁명(sexual revolution)에서 기인한다.

성혁명은 현실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제(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유책주의 이혼법제와 대조적으로 혼인 파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파탄 상태에 근거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제도), 비혼 동거, 동성결혼 또는 난혼(亂婚; 원시사회에서 정해진 부부관계가 아닌 무질서하게 행해지던 성적결합), 비혼 육아, 부(父) 또는 모(母)의 부재를 가져왔다. 그 대가는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이 지불하고 있다. 케이트 파우스트의 저서 <아이들은 정말 편향을 까?)에 나온 사례다.

“엄마 집, 아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다... 나는 부모님 둘 다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빠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집에 있을 때는 아빠가 보고 싶다. 매일 밤 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이혼 가정의 7세 아이).

“나는 15살 소녀이고 엄마가 둘 있다. 그들은 멋지고 최고의 엄마들이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아빠를 원한다. 내가 동성혼이나 동성 부부 육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아빠를 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레즈비언 커플의 딸).

“당신의 정체성의 절반이 한순간에 그렇게 벗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아빠가 나를 팔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자아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란 존재하지 않는다”(정자기증 비혼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

“나는 기증으로 태어났고 살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불구대전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일을 겪기를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빠를 갖고 싶지만, 엄마를 위해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한 적이 없다... 나는

혹시 내가 나의 남자 형제나 친부와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내가 매일 하는 질문은 ‘누가 왜 이런 짓을 나에게 한 걸까?’이다”(정자기증을 통해 태어난 딸).

어떤 이유로든 친모와 친부와의 관계를 상실한 아이들은 평생 지속하는 상처로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 남녀 한 쌍의 혼인으로 구성된 전통적 가정은 친부모가 자연스럽게 친자를 양육하도록 보장해주는 가장 자녀 친화적인 제도이다. 다양한 가정을 옹호하는 성혁명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그 자녀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잘못된 신념의 좋은 예이다.

미국은 1969년 파탄주의 이혼제도가 도입되면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평생의 연약으로서의 결합이 아니라 당사자가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처럼 여겨지면서 수많은 가정이 깨졌다. 나아가 결혼

술(정자, 난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대리모)을 통해 술한 동성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10명의 엄마도 1명의 아빠를 대체하지 못하며, 10명의 아빠도 1명의 엄마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두 아빠가 아빠의 역할은 완벽하게 감당하겠지만 한 엄마는 될 수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뼈아프고 가슴 시린 현실이다. 부모가 이혼했든, 비혼모나 동성 부모가 보조 생식기술로 낳았든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은 친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 성혁명의 영향 아래 정치적인 선전(성인이 합의한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편향을 것이라는 선전)을 통해 친부모를 절박하게 찾고 싶고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더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성인의 욕구에 희생된 성혁명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양산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

에서 ‘당사자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고는 당사자만 행복하다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아니더라도 결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2015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성혁명이 지배하는 주류 문화에서는 아이들은 친부 혹은 친모가 없어도 안전하고 사랑만 받으면 괜찮고, 엄마나 아빠가 들어도 괜찮다고 노래를 불러댄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한 사람의 아버지와 한 사람의 어머니를 간절히 원하고, 친부모 모두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두 성별의 부모는 인간을 최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필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비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전통적인 가정이었다. 대기업 등 사회단체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압력이 높아만 가는데 완벽한 성별 균형을 이루는 기관 즉, 가정의 성비는 깨려고만 한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보조 생식기

누가 진정한 피해자일까?

현재 우리나라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서 ‘혼인, 입양,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념의 삭제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혼 동거, 동성 동거 등 전통적인 가족 이외의 형태를 가정으로 인정하려는 입법이 시도 중이다. 파탄주의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전철을 밟아 성인이 원하면 동거 커플, 비혼 출산, 동성 결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언제든지 부부의 서약을 포기시키려는 주장을 법원이 수용하는 파탄주의 이혼제도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합의만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의 결합도 혼인 또는 가족으로 인정

하지는 주장이 입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로 승인될 경우, 남녀 간 소중한 결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결혼은 일방의 성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든 깰 수 있는 계약처럼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사회 관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잘못된 신념의 희생자로 양산될 것이다.

동성혼 합법화 배경에는 친자를 낳을 수 없는 동성애자와 본인 선택으로 비혼 상태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른 성인들을 피해자로 그려낸 대중문화가 있었다. 행복하지 않은 혼인 상태의 성인은 억압적인 제도의 피해자로 그리면서 성인이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것이므로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우면 이혼하라고 부추긴다. 우크라이나는 대리모 규제가 느슨해 유럽 최대의 대리모 공급지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서구 언론은 출산아를 받는데 차질이 생긴(아기를 얻기 위해 돈을 지급한) 의뢰인 부모들이 최대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누가 진정한 피해자일까?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동성 커플의 연애 감정이나 자녀를 갖고 싶은 비혼 성인의 욕구에 따라 친모(혹은 친부)와 강제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갈 아이들이 희생자이다. 자녀를 갖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성인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 그 성인이 희생자라고 믿게 되면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우크라이나 대리모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돈으로 맞춤형 아기를 만들고 인간을 상업화하며, 아이들에게 생모와의 단절을 반드시 야기하고 유전학적 어머니의 상실도 수반할 수 있는 대리모 행위의 해악과 그 최대 희생자인 아이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희생자를 양산하는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정치적 견해나 공공정책은 문화로부터 내려온다.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가 드러나도록 문화를 바꾸는 데 일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법에 근거하는 합리적인 반대 논거와 성혁명의 희생자가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숙지하고, 성인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성인들이 욕구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끔 조심스럽고 온유한 방식으로 권면해야 한다.

오는 4월 19일과 26일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를 주제로 온누리세계관학교(이하 세계관학교)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세계관학교에 참여하는 것도 망가진 문화를 회복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많은 성도가 이번 세계관학교를 통한 문화 회복에 동참해서 성인의 욕구에 희생된 성혁명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양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

문의 02-3215-3637

